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독재자가 돌아온다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영상학과 교수



한국에서 2월25일은 꽤 오랫동안 의미 있는 날이었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그 전년 12월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한민국 공식 13대 대통령 노태우부터 18대 박근혜까지 여섯 대통령의 취임식이 2월25일에 국회의사당 안의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법규 일정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2017년 5월9일 실시된 선거 다음 날인 5월10일에 바로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그에 맞추어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3월 선거에 이어, 같은 5월10일에 취임했다. 올해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국과 같은 정치 격변을 겪지 않은 미국에서는 1933년부터 대통령 선거 다음 해의 1월20일, 혹은 그날이 일요일이면 1월21일로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고정해 지키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도 역시 1월20일이었다. 실시간 TV로 시청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989년의 아버지 조지 부시가 처음이었다. 전체적 느낌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보다 자리를 떠나는

이의 행사가 더욱 화려했다. 떠나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배우로 원래 유명하게 된 이의 밑에서 8년을 버틴 그 자리에 올라간 조지 부시에게 앞선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컸다. 선인 대통령의 치적을 기리는 특별 TV 프로그램들이 연달아 나왔다. 그 중에서 로널드 레이건의 집고 큰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자 이런 대답을 했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사실 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대통령이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게 그랬다. 고등학교생으로 맞이한 ‘대통령 유고’라는 글자에 굳이 이름을 쓸 이유가 없었다. 대통령은 내 또래가 그 단어를 알기 시작한 이래 오로지 그 한 사람이었다. 1961년부터 따져서 유고 사태가 날 때까지 ‘18년’이었다. 유고 발표가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8년 독재’라고 자연스럽게 수식어가 붙었다. 이전에 역시 ‘장기 독재’라는 표현을 쓴 리승만의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한 기간만 보면 12년이었다. 지금이야 세계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여 10년 이상 국가 원수로 권력을 누리며 있는 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2010년으로만 거슬러 가도 20년 이상이 수도룩했다. 그들 장기 집권이 새삼스러 부각된 게 2011년 정점을 찍은 이른바 ‘아랍의 봄’과 함께였다.

북아프리카 지중해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 나라의 독재자들이 2011년에 몰려났다. 1987년 쿠데타를 일으키며 집권한 튀니지의 벤 알리, 1981년 전임이 반란세력의 총탄으로 살해되며 부통령에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무바라크, 1969년 권좌에 올라 미국의 폭격까지 견뎌낸 한국에서도 잘 알려졌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바로 그들이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국민의 저항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집권 기간만 합쳐서 100년에 가까운 세 독재자를 끌어내렸다고 평가한다. 이른바 ‘재스민 혁명’이었다.

최초로 대규모 민중 시위가 일어난 건 튀니지였다. 분신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만 군중 시위 속에서도 벤 알리는 버티었다. 결정타를 날린 건 군부였다. 독재자 벤 알리의 명령을 따르기를 군부가 거절했다. 군부마저 등을 돌리면 알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고, 선거가 실시되었다.

벤 알리의 망명으로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 튀니지 사람들이 생각했나 보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이들이 55% 정도에 머물렀다. 정권이야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20년 이상 정권을 잡고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한 독재자들에 기생했던 세력들의 힘이 생각보다 컸다. 전체적으로 낮은 투표율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독재 권력의 찌꺼기들이 자신들끼리 뭉치고, 무지한 세력

들을 규합하여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다. 민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선거가 예정된 2011년 10월23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벤 알리가 튀니지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우며 나타났다. 독재자의 뻔뻔한 얼굴 표정을 담은 옥외 포스터에 사람들이 경악했다. 포스터를 가리키며 항의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후 독재자의 초상을 담은 포스터가 떼어지면서 그 뒤에 문구가 나타났다.

‘정신 차리세요. 독재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10월23일에 투표하세요.’(사진)

확실한 효과를 거둔 옥외광고였다. 광고를 실시하기 이전의 투표 참가 의향 55%를 훨씬 넘어 88%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광고는 세계적 광고제에서 두루 수상하며, 튀니지의 광고 창의 역량까지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높아진 투표율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2011년 20년 이상 집권했던 독재자들을 내쫓았던 이수 리비아와 이집트의 사정이 기대처럼 평화롭게 돌아

가지 않았다. 카다피가 몰려난 리비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내전이 일어났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전 와중에 목숨을 잃었다. 2차 내전의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언제 다시 살상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카다피 시절에는 민중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지는 않았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들어섰다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바뀌었다. 혁명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탄하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곳은 처음 아랍의 봄이 촉발되었다고 한 튀니지였다. 튀니지에서는 원활하게 선거가 행해졌다. 거기에 광고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2011년의 광고 효과가 세월이 지나며 사라졌는지 튀니지의 앞날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2019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한국에서 1970년대에 시행했던 ‘긴급조치’와 유사한 ‘명령통치’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작년 2024년 10월에는 자신에 대항하는 후보들을 실격 시키면서 당선되었다. 부정이 극심한 가운데 득표율은 90%에 이르렀지만, 전체 투표율은 30%도 되지 않았다. 그 래도 적법한 대통령이라고 자랑한다. 그나마 몇 차례 선거가 격식을 갖춰서 행해지는 데는 광고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광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 시스템의 정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가.

문화 슬세권으로 만드는 생활 속 문화도시, 광주 동구!

기고

문창현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요즘 신조어로 역세권, 숲세권, 물세권, 심지어 스세권(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는 권역)에 이르기까지 ‘0세권’이라는 용어가 뜨고 있다. 그중에서도 ‘슬세권’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슬세권은 ‘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언제나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라는 의미로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유행했던 문화 슬세권이란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바로 주민들의 일상 속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권역을 뜻한

다. 일반적으로 일, 주거, 교육, 의료, 공급, 문화 등 6가지 요소에 대한 도시의 접근성이 15분을 넘지 않아야 그 도시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문화 슬세권은 바로 그 ‘15분 도시’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15분 안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로컬보다도 더 작고 미세한 공간 단위인 하이퍼로컬(Hyper-Local)을 지향한다.

즉 문화 슬세권은 격식 있고 전문적인 문화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도시공간을 개성이 넘치는 문화향유의 터전으로 탈바꿈시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가깝게 소통하는 생활문화 공간이다.

이는 주민 생활 구성구석에 문화적 향기를 확산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의 눈높

이에 맞는 고유한 문화도시의 색깔을 입히는 데 기여한다.

문화 슬세권은 연령, 계층,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모두에게 열린 문화적 동행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방성, 포용성, 보편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문화 슬세권은 반드시 전문적 예술인이나 거창하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라도, 우리네 이웃이 가진 유·무형의 재능을 일상에서 소소하게 나누는 문화나눔 장터이다. 이는 그 도시의 색다른 문화적 풍경을 형성하고, 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표상이 되기도 한다.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생활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문화가 꽃피도록, 생활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의 삶 속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이에 따른 삶

의 행복감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궤를 함께해 동구문화관광재단도 모두의 열린 생활 속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주민친화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슬세권형 문화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이 추구하는 3가지 문화 키워드는 ‘생활문화’, ‘문화복지’, ‘문화향유’이다.

먼저 생활문화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자생적·자발적인 문화활동의 근간이 되는 생활문화동아리를 발굴·육성하고, 활동공간 확보, 동아리 특화사업 추진, 분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중심의 동아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 측면에서는 문화적 접근성이 낮거나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사각지대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가호호 찾아가서 예술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보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구 보물탐험대’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 사각지대에 있는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향유 측면에서는 직장인, 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핫스팟이나 캠퍼스, 주거단지 등에서 야외브런치형 점심콘서트나 야간 브랜드공연을 통해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거리예술 문화향유 슬세권을 만들고자 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나눔과 고즈넉한 원도심 골목마다 펼쳐지는 거리예술의 향연은 광주 동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 슬세권으로 만드는 생활 속 문화도시, 광주 동구의 문화적 경쟁력이 여기에 있다. 동구가 지향하는 핵심 슬로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지역에 문화 소외는 없다’이다.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